

김춘수 시의 트라우마와 자기 치유적 성격에 관한 연구

문 혜 원 *

1. 들어가는 말
2. 부정적인 기억에의 직면과 정서적 전환을 통한 심리적 억압 해소
3. 허구적 상상력의 활용과 역사성의 삭제를 통한 치유
 - 1) 허구적 상상력을 활용한 상황의 역전
 - 2) 역사성의 삭제를 통한 억압의 해소
4. 나가는 말

1. 들어가는 말

김춘수는 자전소설 『꽃과 여우』(1997)에서 유년시절의 기억과 일본에서의 수수 생활, 해방후 1950년대까지의 생활을 상세하게 밝혀놓고 있다. '꽃의 장'은 이미 발표된 소설 「처용」(1963)과 기 발간된 수필집의 내용들을 포함하고 있고, 유년의 기억부터 대학 재학 시절까지를 중심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에 비해 '여우의 장'은 일본에서의 수감 체험을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고 해방 이후부터 1950년대에 이르는 시기의 일들을 기록하고 있다.¹⁾

이 소설은 시 창작의 동기가 되는 과거 에피소드들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²⁾ 그런 면에서 기본적으로 자전적 체험을 바탕으로 하고 있지만 체험의 내용

* 아주대학교 국어국문학과 부교수.

1) 자전소설 『꽃과 여우』의 구성과 내용은 손진은, 2002 「김춘수 자전소설 『꽃과 여우』 연구」 『어문론총』 37에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다.

에 따라 그것을 가공하는 정도나 방식에 차이가 있다. 해방 후 일상적인 생활 체험들은 객관적 사실 위주로 담담하게 기록되어 있는 데 비해 유년의 기억이나 수감과 관련된 내용들은 실제 사실과 그것에 대한 주관적인 인상들이 뒤섞여 있다. 특히 ‘꽃의 장’ 부분은 실제 사건보다 그것에 대한 주관적인 인상을 설명하는 것에 치중하고 있다. 사건 자체에 대한 객관적 전달이 아니라 자신의 정서와 느낌을 표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다. ‘자전소설’이라는 명칭을 붙이고 있는 것은 이러한 가공성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³⁾

여기에는 김춘수에게 정신적인 외상을 남긴 사건들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두드러지는 것은 폭력과 연관된 경험들이다. 어린 시절 자신을 괴롭혔던 아이들 간 폭력이나 놀림을 받던 기억, 반대로 자신이 상대에게 가했던 폭력과 수감 체험 등이 그것이다. 그 중 수감 체험은 개인의 힘으로는 저항할 수 없는 극단적인 폭력의 상황에 노출된 사건으로서 가장 강력한 트라우마로 남아있는 경험이다. 그는 고문을 당하고 감방 생활을 하면서 육체적인 폭력 앞에 인간이 얼마나 무력한 존재인지를 알게 되고, 역사나 이데올로기가 개인에게 폭력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깨닫게 된다.⁴⁾

단편소설 「처용」을 쓴 지 삼십여 년이 지난 후에야 비로소 수감 체험이 소설

2) 이러한 내용들은 종종 시로 형상화되어 나타나는데, 이런 면에서 『꽃과 여우』는 창작해설 서적인 성격을 아울러 지니고 있다.

3) 청마와 관련된 기억을 쓴 다음 부분은 실제 경험과 창작이 어떻게 다른지를 직접 보여주는 부분이다. “최근에 나는 그런 청마가 문득 생각이 나서 <청마의 헬멧>이란 제목으로 산문시를 한 편 썼다. (중략-인용자) 그때 나를 따라나왔다는 헬멧은 물론 허구지만, 청마가 나를 바래다주며, 한편 자기를 혼자 두고 간다고 서운해하는 그런 모습의 알레고리다.”(김춘수, 1997 『꽃과 여우』, 민음사, 212-213면) 그가 청마 문병을 간 것은 실제 경험 이지만, 시에서 헬멧 하나가 따라나오는 것은 실제가 아니라 김춘수가 그날의 문병에서 받은 인상을 표현한 것이다. 이는 자전적인 글쓰기 또한 기본적으로 허구성을 가지고 있으며 이런 면에서 일거나 수필과 구별된다는 것을 보여준다.

4) 김춘수, 1991 「장편 연작시 <처용단장> 시말서」 『처용단장』, 미학사, 137면. “역사는 선한 의지도 가지고 있을을지는 모르나 나에게는 악한 의지만을 보여주었다. 나는 역사를 악으로 보게 되고 그 악이 어디서 나오게 되었는가를 생각하게 되자, 이데올로기를 연상하게 되고, 그 연상대는 마침내 폭력으로 이어져 갔다. 나는 폭력·이데올로기·역사의 삼각관계를 도식화하게 되고, 차츰 역사 허무주의로, 드디어는 역사 그것을 부정하는 지경에 이르게 되었다.”

에 포함되었다는 것은, 그것이 다른 자전적 체험에 비해 훨씬 강력하고 충격적인 사건이었음을 말해준다. 이러한 경험을 시나 소설로 형상화하는 것은, 회피하고 싶은 부정적인 기억들을 떠올리고 그것을 글로 형상화함으로써 심리적 압박감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것이다.⁵⁾ 창작 행위에 상상력이 개입됨으로써 실제 자신과 거리감을 확보하고 사건을 객관화시키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특히 자전적 글쓰기 혹은 자전적 경험을 소재로 한 창작물은 이같은 특징이 두드러진다.⁶⁾ 이런 의미에서 창작 행위는 그것 자체가 트라우마를 치유하는 과정이라고 설명될 수 있다.⁷⁾

김춘수의 트라우마와 그것을 치유하는 과정은 소설『꽃과 여우』와 연작시「처용단장」에 집약된다.⁸⁾ 「처용단장」과 『꽃과 여우』는 비슷한 내용을 형상화한 것들이 많았는데, 그 중에서도 부정적인 기억들은 상상력이 더해지면서 실제 경험과는 구별되는 허구의 이야기로 변화된다. 「처용단장」 이후 김춘수의 시는 과거의

5) 손병희 역시 김춘수 시의 중요한 주제로 폭력을 들고 있다(손병희, 2015 「김춘수 시와 폭력의 문제」, 『국어교육연구』 57). 그러나 손병희는 김춘수의 시에서 일부분이 삭제된 이유를 “피해자의 심리적 방어 기제는 치욕에 대한 기억을 은폐하거나 억압함으로써 심리적 평형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라고 설명하여 폭력과 관련된 기억을 은폐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김춘수의 시는 폭력적인 기억들을 반복하여 말함으로써 상처를 극복하려 한다는 점에서 은폐보다는 문학 치유의 ‘기억하기’와 ‘드러내기’에 더 가깝다.

6) 이창재, 2003 『프로이트와의 대화』, 민음사, 144면. “무의식의 상처는 안전한 상황에서 ‘반복’될 경우, 그것에 대한 자아의 불안이 완화된다. 예술가들은 무기력했던 유년기의 상처들을 작품이라는 안전한 매체를 통해 상징적으로 분출한다.”

7) 글쓰기 치료는 독서 치료와 함께 문학치료의 중요한 방법이다. 독서 치료가 독자들이 문학작품을 읽음으로써 생기는 치유라면, 글쓰기 치료는 본인이 직접 글을 씀으로써 치유하는 것이다. 시인이나 소설가의 창작 행위 또한 창작자 자신의 트라우마를 치유하는 방법일 수도 있다. 특히 자전적 성격이 강한 글쓰기는 이러한 특징이 더욱 두드러진다. 창작적 글쓰기와 치유 효과를 연결시켜 작품을 분석한 연구로는 김지혜, 2009 「오정희 소설 속의 정신적 외상과 그 치유 과정의 의미」, 동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권성훈, 2009 『한국 현대 시에 나타난 치유성 연구』, 경기대학교 박사학위논문; 지주현, 2009 「오정희 소설의 트라우마와 치유」, 『한국문학이론과 비평』 45; 박지해, 2011 「시 쓰기를 통한 백석의 자아 치유 연구」, 한국외국어대학교 석사학위논문 등이 있다.

8) 「처용단장」을 김춘수의 트라우마와 관련하여 해석한 선행 연구로는 최라영, 2011 「『처용연작』 연구: “세다가와서” 체험과 무의미시의 관련성을 중심으로」, 『한국현대문학연구』 35; 김성리, 2012 『김춘수 시를 읽는 방법』, 산지니 등이 있다.

기억에서 벗어나 현재의 일상생활을 소재로 하고 무의미시는 일반적인 서정시로 변모한다. 이는 김춘수가 「처용단장」을 분수령으로 하여 자신의 트라우마를 치유하고 비로소 현실의 삶을 받아들이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고는 이러한 점에 주목하여 폭력 경험을 바탕으로 하고 있는 김춘수의 시를 트라우마와 치유라는 관점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소설 『꽃과 여우』와 연작시 「처용단장」을 비교 연구하며, 필요에 따라 「처용단장」을 전후한 시와 소설, 수필 등을 함께 검토할 것이다.

2. 부정적인 기억에의 직면과 정서적 전환을 통한 심리적 억압 해소

『꽃과 여우』에는 종교와 폭력, 역사, 민중, 성(性) 등 김춘수 시의 원형을 이루는 몇 가지 주제와 관련된 에피소드들이 들어있다. 그 중에서도 개인적인 트라우마로 남아있는 것은 폭력과 연관된 기억들이다. 성이나 종교, 역사 같은 나머지 주제들은 폭력과 결부되어 기억되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성(性)’은 또래 남자아이들에게 매를 맞거나 누명을 썼던 기억과 연결되고,⁹⁾ 종교적 상징인 예수는 성스러움의 이미지 대신 폭력으로 인한 육체적 고통이 부각되어 있다.¹⁰⁾

‘나’의 기억 속에서 폭력은 역사나 이데올로기뿐만 아니라 생활 속에 자연스럽게 배어있는 것이다. 폭력은 어렸을 때 그가 겪었던 경험의 일부로서 자신이 피해자인 경험과 가해자인 경험을 모두 포함한다. 그는 부유한 환경에서 자란 탓에 또래 아이들의 표적이 되어 매를 맞기도 하고,¹¹⁾ 정반대로 이유없이 식모아 이를 때리기도 한다.

이러한 과거 경험을 글의 소재로 선택하는 것은 무의식에 남아있는 억압된 기억들을 전의식으로 옮겨오는 것으로서¹²⁾ 트라우마를 치유하는 첫 단계에 해당한

9) 『꽃과 여우』, 50-55면.

10) 『꽃과 여우』, 171-174면. 이 내용은 「못」, 「마약」, 「아만드꽃」, 「요보라의 쑥」, 「겟세마네에서」 등의 시에 형상화되어 있다.

11) 『꽃과 여우』, 48-49면.

다. 그것은 트라우마의 원인이 되는 기억에 직면함으로써 문제를 인식하는 것이다.¹³⁾ 정신적 외상을 입은 경험을 떠올린다는 것은 자신의 상처를 직시하고 자신에게 일어났던 일을 인정하는 일차적 방법이 된다.

과거 기억에 직면한 후 그것을 치유하기 위해서는 사건에 대한 정서적인 전환이 필요하다. 외상을 가진 주체는 기억에 직면한 후, 일차적으로 부정적인 기억이 동반한 정서적인 우울감에 빠지게 된다. 하지만 이 과정은 자신에게 일어난 상실과 상처들을 인정하고 억압된 감정들을 방출함으로써 카타르시스 효과를 가지고 있다. 부정적인 정서들은 은폐되는 것이 아니라 표출됨으로써 부정적인 색채를 거두고 새로운 정서로의 전환이 가능해지는 것이다.¹⁴⁾ 『꽃과 여우』에는 폭력과 연관된 실제 사건들과 그것을 전후한 정서적 정황이 함께 나타나 있다. 이것은 실제 있었던 일에 추후 해석이 첨가된 형태로 구성되어 있다.¹⁵⁾

12) 이창재, 앞의 책, 108면. “정신 분석 치료의 효과는, 무의식에 위치하기 때문에 병인으로 작용하는 과거 사건의 흔적을 전의식으로 끌어들여야 한다.”

13) 트라우마 치료의 단계는 학자마다 다르고 단계 설정 또한 다르지만, 가장 먼저 원인이 되는 문제 자체에 직면해야 한다고 보는 것은 공통적이다[학자에 따른 트라우마 치유의 단계는, 주디스 허먼(최현정 옮김), 2012 『트라우마』, 열린책들, 261면 참고]. 프로이트는 트라우마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먼저 무의식의 세계 안에 공고하게 저장된 원초적인 기억들을 의식 안으로 끌어와 그 내용에 대해서 각성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고 본다[지그문트 프로이트(임홍빈·홍혜경 옮김), 1997 『정신분석 강의 하』, 열린책들, 398면(지주현, 앞의 논문, 261면에서 재인용)].

14) 존 알렌은 잠재된 정서 계발을 통해 공포와 분노에 압도된 감정을 조금씩 완화시켜 트라우마를 치유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감정이나 정서를 억제하는 것이 아니라 분출함으로써 카타르시스 과정을 통해 자기조절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다. 존 알렌(권정혜 외 옮김), 2010 『트라우마의 치유』, 학지사, 335면. “고통스러운 정서를 억누르거나 극복하기 위해서는 자제하려고 노력하기보다 고통스러운 정서를 포함해서 정서를 계발하는 것이 최선이다.”

15) 예를 들어 『꽃과 여우』의 서문에는 ‘열 살 남짓한 무렵에 지나가다 의자를 보았는데 그 의자가 자신을 거부하는 것처럼 보였다’라고 되어 있다. 익숙한 어떤 대상이 어느 순간 낯설게 느껴지는 것은 누구나 이따금 경험하는 것이다. 따라서 열 살 남짓한 아이가 의자를 보고 낯선 느낌을 받을 수는 있겠지만, 그것에서 ‘의자가 나를 거부한다’라는 생각을 했다는 것은 나이에 걸맞은 느낌은 아니다. 이는 추후 해석이 덧붙여져서 당시의 기억으로 여겨지는 것일 가능성성이 높다.

A 나는 무엇이든 도와주고 싶었다. 나는 그럴 수 있는 입장이었고 그 아이는 또 늘 뭔가를 호소하는 듯한 눈매를 하고 있었다. 그러나 내가 손을 뻗어 그 아이의 뭔가 호소하려는 것을 붙잡아주려고 내 눈이 표정을 지으려 하면, 그 아이는 으레 눈을 떨구거나 얼굴을 돌렸다. 그 아이는 차츰 나에게는 ‘미운 오리 새끼’가 돼갔다.

(중략)

B 나는 그때 뒤청에 걸터앉아 하염없이 대발을 바라보며 바람을 쐬고 있었다. 그 아이가 그때 또 무심코 이리로 꺾어 들어서다가 나를 보자 웬지 질겁을 하며 얼른 몸을 돌리려고 했다. 나는 그 아이를 불러 세웠다. 물 한 사발을 떠오도록 일렀다. 내 속은 편하지가 않았다. 그날따라 속이 매스껍기만 했다. 물사발을 들고 이 쪽으로 막 꺾어든 그 아이를 향해 나는 달려갔다. 나는 다짜고짜로 그 아이의 눈두덩이에 힘껏 주먹을 날렸다. 그 아이는 거기 고랑창에 한쪽발을 쳐박고 거꾸러져서는 한동안 일어나지를 못했다.

- 김춘수, 『꽃과 여우』, 39면

인용된 부분에서 과거 기억은 두 부분으로 나누어지는데, A에는 식모아이에 대한 미안함과 자책감이 드러나 있고, B에는 식모아이에게 이유 없이 폭력을 가한 일이 그려지고 있다. A에서 그 아이의 ‘호소하는 듯한 눈매’는 부잣집 아들인 ‘나’가 또래인 식모아이에게 느끼는 알 수 없는 부채감과 미안함이 반영된 것이다. 즉 자신에게 무엇인가 호소한다는 느낌은 ‘그 아이’로부터 온 요구가 아니라 ‘나’의 심리적인 압박감을 대상에게 투사하여 만들어낸 것이다.

소설은 A의 ‘그 아이’에 대한 ‘나’의 복합적인 감정이 먼저 설명되고 B의 ‘그 아이’를 때린 일이 후술됨으로 해서 사건이 순차적으로 일어난 것처럼 묘사되고 있다. 즉 ‘그 아이’에 대한 ‘나’의 폭력은 부채감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심리가 공격적인 것으로 표출된 것으로서, ‘나’가 식모아이에게 잘해주려는 마음과는 정반대로 ‘그 아이’에게 폭력을 가한 것이라고 설명하는 것이다.

그러나 실제 사건이 일어났을 때 ‘나’의 나이가 여덟 살임을 감안하면, ‘그 아이’에게 느꼈던 복합적인 감정들은 막연히 느껴지긴 하지만 명확하게 어떤 것인지 설명될 수는 없는 것들이다. 그 아이에게서 호소하는 듯한 느낌을 받고 해결해주지 못한 자책감 때문에 오히려 그 아이에게 폭력을 가하게 되었다는 A의 설명은, 사건 후 어느 정도 철이 들고 난 후 부가된 해석일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이는 어린 시절의 놀이와 관련된 기억에서도 동일한 방식으로 드러난다.

C 언젠가 그때도 봄날이다. 개나리가 한창때다. 서넛이 유치원 가는 길에서 어우러지게 됐다. 그 수령에 이르자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이심전심으로 발을 멈췄다. 수령 가장자리에는 개나리가 지천으로 피어 있었다. 수령을 들여다보니 계 한 마리가 어디서 나왔는지 눈을 두리번거리며 입에 거품을 물고 있었다. 한 아이가 뛰어내려 사정없이 계의 팔다리를 몇 개를 뽑았다. 계는 우스꽝스런 꼴이 됐다. 왜 그랬을까? 그 아이는 계의 그런 모양새를 보자 어떤 장면이나 형상이 연상됐는지도 모른다. 우리는 병신이 된 그 계를 노리개 삼아 한참이나 짓궂은 장난을 하며 놀다가 그날은 유치원을 깨먹었다. D 몹시 안됐고 겁나기도 했으나 다른 애들을 따라 끌내 그 자리를 뜨지 못했다.

- 김춘수, 『꽃과 여우』, 28면

인용된 부분은 아이들과 어울려서 계의 팔다리를 뽑고 괴롭혔던 어린 시절의 기억을 보여준다. C의 수령을 기어가는 계의 팔다리를 뽑고 그것을 가지고 놀다가 유치원을 빼먹은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에 대해 “몹시 안됐고~못했다”는 D의 설명은 사건이 있을 당시의 판단이 아니라 추후에 가해진 정서적 분석일 가능성이 높다. 당시 아이들의 장난에 소극적으로 동조하며 무언가 찜찜한 마음이 있을 수 있지만, ‘계가 불쌍하고 팔다리를 뽑힌 형상이 끔찍하고 무서웠지만 결국 아이들의 잔인한 장난에 합세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하는 것은 시간이 흐른 뒤 ‘그때는 사실 그랬다’는 식의 추후 진술에 가깝다. 무의식 속에 남아있던 어린 시절의 장난에 대한 기억이 전의식의 상태로 불려온 후, 어린아이들의 잔인성과 그것을 방관하거나 소극적으로 가담했던 자신의 행위에 대한 추가적인 상황 설명으로 재현된 것이다.

이처럼 부정적인 경험은 추가적인 해석이 덧붙여짐으로 해서 새롭게 구성된 기억으로 자리한다. 추가적인 해석은 과거 사건에 자신이 이해할 수 있는 전후 맥락을 부여함으로써 부정적인 기억을 정서적으로 완화시키는 역할을 한다.¹⁶⁾

16) 주디스 허먼은 외상을 치유하는 단계인 기억과 애도 중에 이야기를 재구성하는 단계를 설정하고 있는데, 이는 외상이 일어나기 전부터 일어나기까지 이어진 상황을 검토하는 것에서 시작한다. 치유를 위해서는 반드시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있었던 이야기를 되찾아야 하는데, 이는 ‘삶의 흐름을 재생’하기 위한 것이다. 이 탐색을 바탕으로 외상에 담긴 특정한 의미를 이해할 수 있는 맥락이 생긴다. 이 때 이야기를 재구성하는 것은 일종의 정서적 전환에 해당한다. 즉 사건을 중심으로 한 전후의 이야기를 파악하고 새롭게 맥락을 구성함으로써 사건에 대한 정서적인 전환을 이루게 되는 것이다(주디스 허먼, 앞의

이러한 정서적 분석의 과정을 통해 과거의 사건은 새로운 맥락에 놓이게 된다. 실제 사건은 동일하지만 그것에 대한 자신의 느낌이나 정서, 생각 등을 정리하는 과정을 통해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찾고, 원인이 되는 사건을 보다 넓은 전망 속에서 통찰할 수 있는 가능성을 얻게 되는 것이다.¹⁷⁾ 정서적 전환을 통해 서 ‘계’와 관련된 기억은 다음과 같은 시로 형상화된다.

팔다리를 뽑힌 게가 한 마리/ 길게 파인 수령을 가고 있었다.
 길게 파인 수령의 개나리꽃 그늘을/ 우스꽝스런 몸짓으로 가고 있었다.
 등에 업힌 듯한 그/ 두 개의 눈이 한없이 무겁게만 보였다.

- 김춘수, 「처용단장」 제1부 9 전문

이 시는 앞에서 인용한 소설의 내용에서 계의 팔다리를 뽑는 행위와 그때 느꼈던 죄책감 등을 삭제하고 계 한 마리가 기어가는 풍경만을 묘사하고 있다. 소설에서 “몹시 안됐고 겁나기도 했으나 다른 애들을 따라 끝내 그 자리를 뜨지 못했다.”라고 서술되었던 부분은 “등에 업힌 듯한 그/ 두 개의 눈이 한없이 무겁게만 보였다.”라는 구절로 바뀌어 있다. 계의 두 눈이 ‘한없이 무겁게만’ 보이는 것은 그것을 바라보고 있는 화자의 무거운 마음이 투사된 것이다. 소설적인 맥락에서 보면 이 무거운 마음은 자신이 저지를 행위에 대한 죄책감이다. 그러나 시에서 ‘무거움’은 화자의 행위와 연결되는 것이 아니라 대상에 대한 주관적인 인상일 뿐이다. 소설에서는 자신의 행위에 대한 죄책감이 직접적으로 서술되어 있는데 비해, 시는 기억과 연관된 감정을 제거하고 대상에 대한 일반적인 묘사로 바뀌어 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계와 관련된 죄책감은 극복되고 과거의 사건은 다른 것들과 동일하게 일반적인 소재가 된다.¹⁸⁾

책, 294-296면).

17) 매리노프는 정신적 혹은 정서적 측면의 고통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문제 자체에의 인식(1단계), 이전에 깨닫지 못했던 정서적 측면의 분석(2단계), 문제에 대한 외부로부터 혹은 내부로부터의 해결(3단계), 전체적 상황의 숙고 및 정관(4단계), 평정 상태로의 도달(5단계)의 과정을 거친다고 보고 있다[루 매리노프(이종인 옮김), 1999『철학으로 마음의 병을 치료한다』, 해냄, 65-66면].

18) ① 인용된 『꽃과 여우』의 내용은 소설 「처용」(1963)에 나오는 것으로, 소설에서는 계집

자전적 기록과 허구가 섞여있는 『꽃과 여우』가 문제를 인식하고 정서적 전환을 통해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놓았다면, 「처용단장」은 그것을 바탕으로 원인이 되는 사건을 새로운 맥락에 위치시킴으로써 트라우마를 극복하고 평정 상태에 도달하려는 시도를 보여주는 것이다.¹⁹⁾

그런데 ‘나’가 폭력의 가해자가 아니라 피해자인 경우 트라우마를 치유하는 방식은 이와는 다른 형태로 나타난다. 소설에서 ‘나’는 200평이 넘는 집을 가진 만석꾼의 아들로서 유복한 유년을 보낸다. 이러한 환경은 실제 생활에서 머슴이나 침모, 식모 등 ‘민중’에 해당하는 사람들을 자주 만나는 계기가 된다. ‘나’는 그들과 자신을 다르다고 생각하지 않지만 경험을 통해 그들과 가까워질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된다.²⁰⁾ 머슴이지만 자신을 살뜰하게 챙겨줘서 친하다고 생각했던 사람이 자신을 외면하거나, 운동회 때 가족의 호사스러움이 미안해서 점심을 굽었지만 운동회가 끝난 후에 또래 아이들로부터 따돌림을 받은 일 등이 그 예이다.²¹⁾

애가 계를 밟고 다리를 뽑는 것으로 되어 있다(김춘수, 1983 『김춘수 전집 3』, 문장, 413면). 따라서 이 에피소드는 실제 사건→소설적 형상화→시적 형상화의 순서로 설명할 수 있지만, 모든 에피소드가 이같은 장르상의 순서대로 형상화되는 것은 아니다. 치유 단계로 볼 때 소설보다 시가 더 발전적인 단계로 설명되는 것은 창작 시기가 나중이기 때문이다 아니라 시의 장르적 특징 때문이다. 소설이 특정한 사건 자체에 초점을 맞춘다면, 시는 그 사건의 특수성을 보편적인 것으로 일반화한다. 소설이 소설 내용과 거리가 유지된 상태에서 감상이 시작된다면, 시는 독자와 시(인)의 공감에서부터 감상이 시작된다. 이러한 시 감상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시가 가진 보편성이라는 특징이다.

② 정한아는 이 에피소드에서 계의 다리를 뽑는 주체가 계집아이에서 사내아이로 바뀌는 것을 김현의 정신분석적 해석에 대한 김춘수의 방어적인 행위라고 해석하고 있다(정한아, 2016 『빵과 차: 무의미 이후 김춘수의 문학과 정치』, 연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각주 26번).

19) 문학 치료적 관점에서 시는 “자신이나 다른 사람을 훼손하지 않고 가능한 정서를 나타내며 자신이 미처 체험하지 못한 폐르소나를 드러내고 그것을 통달함으로써 행동의 변화를 꾀할 수 있는 장르”(변학수, 2005 『문학치료』, 학지사, 23면)로서, 사람들은 시 쓰기를 통해 여워과 상실, 수치심, 자기혐오 같은 감정들로부터 해방될 수 있다. 즉 시를 씀으로써 과거의 상처에 대한 정서를 억압하기보다 오히려 잠재된 다양한 정서를 계발하여 공포와 분노에 압도된 감정을 조금씩 완화시키는 것이다(박지혜, 앞의 논문, 7면).

20) 여기서 오는 부채감은 “열다섯살 때 나는/ 프롤레타리아란 말을 처음 들었다./ 명문중학에 다니는 것이/ 웬지 미안했다./ 모자를 벗고 길을 걸었다(중략)”(「처용단장」 제3부 32)로 나타난다.

「인마, 돈 십 전 낼래?」

「.....」

「인마, 니 집 부자지, 인마」

「.....」

「지금 없음 낼이라도 좋아, 인마」

「.....」

「이 자식이 이러기야?」

다가온 기세로 발을 걷어찼다. 한쪽 발이 씨임했다. 비틀거렸으나 넘어지지 않았다.

「인마.」

콧잔등에 주먹이 날아오고 또 한 번 발목이 씨임해지면서 모로 쓰러졌다. 더 벼릴 줄 알았는데 분했다.

「인마, 낼래 안낼래?」

허리통을 질끈 밟는다. 따라온 조무래기들이 둘러쌌다. 코피가 입을 타내렸다.

(중략)

녀석은 그 전에도 몇 번인가 그런 짓을 곤잘 했다고 한다. 저만치 차가 오는 것을 보면 길을 가로지른다. 차가 달려오다가 녀석의 코앞에서 급정거를 하면, 운전대 쪽으로 혀바닥을 한번 쑥 내밀어보이고는 운전수가 어떤 동작을 채 취하기도 전에 쏜 살같이 달아나버린다. 그날의 그 트럭은 그러나 녀석의 코앞에서 급정거를 않은 채 녀석을 쓰러뜨리고 녀석의 아랫도리를 갈고도 한참을 더 가더라고 했다. 브레이크가 말을 들어주지 않은 듯하다. 그런 일도 있으리라고는 녀석으로서는 생각을 못 한 듯하다.

「선생님, 개가 죽었어요. 병원에서 보고 오는 길이에요. 우리집이 병원 바로 옆이에요. 그 애 어머니가 막 울며 야단났어요.」

이렇게 독본을 외듯이 외었다. 한동안 교실 안은 먹먹했다. 죽기 며칠 전에 녀석과 변솟간에서 마주쳤다.

「인마, 니 웃학곤 경성 간다지, 앙이 인마?」

녀석은 기운 좋게 뿐기는 제 오줌발을 바라보고 침을 훠궈 뺐었다.

며칠 뒤에 녀석의 책걸상은 어디론지 치워졌다.

- 김춘수, 『꽃과 여우』, 49-57면

또래 아이들에게서 괴롭힘을 받았던 일은 소설에 자주 등장하는 에피소드이다. 일본인 아이가 썩은 밤을 입에 물리거나, 조숙한 또래 아이의 분풀이 대상이 되고, 싸움에서 제대로 대항하지도 못하고 코피를 흘리며 쓰러진 일 등은 잊지 못할 모욕적인 사건으로 남아있다. 인용 부분에서 '녀석'은 '나'를 부자집 아이라는 이유로 집요하게 괴롭히지만, '나'는 그 아이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육체적인

21) 『꽃과 여우』, 62-63면.

힘으로 그를 이길 수 없었기 때문이다. 거기서 오는 억압과 공포는 ‘녀석’이 교통사고로 죽음으로써 사라진다.

‘나’에 대한 괴롭힘은 실제 있었던 일이고, 괴롭히던 아이가 교통사고로 죽은 일 또한 이와는 별개인 실제 사건이다. 두 사건 사이에는 직접적인 연결 관계가 없지만, 소설에서는 이 두 가지 사건을 나란히 배치하여 아이러니한 느낌과 아울러 사필귀정이라는 인상을 준다. 이런 인상은 ‘녀석’이 죽기 며칠 전 변속간에서 위협을 가하던 일과 죽은 녀석의 책걸상이 치워진 일이 아무 설명 없이 견조하게 서술됨으로써 더욱 강화된다. ‘녀석’의 교통사고는 객관적인 사실로서만 전달되고 있지만, 그 이면에는 죽음의 허무함과 그가 다시는 ‘나’를 괴롭힐 수 없다는 데서 오는 안도감이 묘하게 뒤섞여 있다. 이것은 자신의 힘으로는 해결하지 못한 사건을 다른 외부적인 힘이 대신 해결해줌으로써 심리적 억압에서 벗어나는 것이다.

이처럼 ‘나’가 피해자였던 경험들은 당시 상황에 대한 추가적인 해석과 정서적인 전환을 거쳐 문제를 해결하고 평정 단계에 도달하고 있는 반면, ‘나’가 피해자였던 기억은 스스로의 힘으로 해결되지 못하고 남아있거나 교통사고와 같은 외부의 작용에 의해 간접적으로 해결된다. 그 중에서도 수감 체험은 정서적인 전환이 불가능할 만큼 강력한 트라우마로 남아있다. 이에 대한 치유는 연작시 「처용단장」에서 집중적으로 시도된다.

3. 허구적 상상력의 활용과 역사성의 삭제를 통한 치유

1) 허구적 상상력을 활용한 상황의 역전

정신적 외상 중에는 전쟁이나 자연 재해, 죽음처럼 생명과 신체적 안녕을 위협하거나 폭력이나 죽음과 직접 맞닥뜨리는 것처럼 개인의 힘으로는 어쩔 수 없는 사건이 원인인 경우도 있다. 그것은 위협에 처한 사람이 보이는 각성, 주의, 지각, 정서 변화 등의 대응 방식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으로서,²²⁾ 일반적인 인간 삶의 적응 능력을 압도한다. 개인은 억압적인 상황에 압도되어 일방적으로 그것

22) 주디스 허먼, 앞의 책, 67-70면.

을 겪을 수밖에 없다. 김춘수의 수감 체험이 이에 해당한다.²³⁾

수감 체험은 충격과 공포의 경험으로서 이와 관련된 기억들은 수필이나 소설, 시라는 장르에 상관없이 비슷한 내용을 가지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²⁴⁾ 즉 원인이 되는 사건을 정서적으로 분석하거나 재구성하는 과정이 생략된 채 당시 충격이 반복되며 재현되는 것이다. 유년의 다른 사건들이 수필에서 소설로 옮겨오면서 정서적인 카타르시스를 이루는 반면, 수감 체험은 소설로 옮겨지면서 오히려 정서적으로 더 위축된 듯한 인상을 준다.

D 오늘도 나는 꿈에 생생하게 그때의 일을 보았다. 그러나 쓰기고 있는 것은 내가 아니고 그다. 야스다이던 安某다. 키가 훤칠하고 白皙의 호남이다. 西北 사투리를 쓰던 그, 그는 지금 어디 있을까? 어디서 내 눈총을 받고 있는가?

내 눈총은 지금쯤 그에게는 아무 것도 아닌 것이 되고 말았을까? 그렇다면,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 내 한 사람의 복수심리를 위해서가 아니라 호락호락 내던질 수 없는 어떤 감정(이것만은 꼭 놓치지 말았으면 하는)을 위하여 다시 없는 슬픔이라 아니할 수 없다.

달아나는 그의 눈. 그의 눈은 뒤통수에 달려 있다. 나는 그를 쫓는다. 놓칠세라 나는 쫓는다. 이것은 내 감정이고 동시에 내 윤리다. 어쩔 수 없지 않는가? 내가 그를 붙들었을 때 그를 죽이든가 살리든가 하는 것은 지금은 알 수가 없다. 그 때가 되어 봐야 알 일이다. 지금은 오직 그의 뒤를 쫓는 일이다. 그가 살려달라고 할 때까지, 잘못했다고 용서를 빌 때까지.

그가 나를 반격할지도 모른다는 일말의 불안이 나에게 없는 것도 아니다. 그건 그렇다 하고라도 나는 그날의 그를 잊지 못한다. 겨울 방학의 구성, 기쁜 마음으로 집을 꾸리던 나를 불러낸 그, 아무렇지도 않은 표정으로 명함을 내놓고 나를 붙들어가서는 한 마리 牛馬인 듯 憲兵軍曹에게 넘겨준 그, 그가 그런 짓을 한 그날의 그 흐린 12월의 도쿄의 하늘과 요코하마의 하늘을 나는 잊지 못한다.

나쁜 놈!

23) 특히 「처용단장」 제3부는 수감 중에 꾼 꿈이나 경험 등을 소재로 한 시들이 많은데, 수감 생활을 직접적인 소재로 한 시는 「처용단장」 3부 3, 5, 6, 7, 8, 9, 10, 14, 29 모두 9편이다. 그 중에서 「처용단장」 3부 3과 6은 『꽃과 여우』 188면, 7과 9, 14는 198면, 10은 196면에 나와 있다.

24) 김춘수가 체포되어 요코하마 현병대에서 고문을 당한 이야기는 수필 「달아나는 눈」에 나와 있고 소설 『꽃과 여우』에서 유사하게 반복된다. 『꽃과 여우』에는 이외에 수감생활을 하던 감방에 대한 묘사와 거기서 있었던 에피소드들, 그리고 출감 후 조선으로 압송되던 기억 등이 더욱 상세하게 그려져 있다. 그 과정에서 느꼈던 내용들 중 일부는 시로 형상화되기도 하고, 소설 안에 시 전편이 그대로 삽입되어 있는 경우도 있다.

- 김춘수, 「달아나는 눈」『김춘수 전집 3 수필』, 72-173면

E 언젠가 나는 꿈에 생생하게 그때의 일을 보았다. 그러나 쫓기고 있는 것은 내가 아니고 그다. 야스다이던 안모(安某)다. 키가 훤칠하고 백석(白皙)의 호남이다. 서북 사투리를 쓰던 그, 그는 지금 어디 있을까? 어디서 내 눈총을 받고 있는가? 내 눈총 따위는 지금쯤 그에게는 아무 것도 아닌 것이 되고 말았을까? 그렇다면,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 그것은 다시 없는 비극이 되리라.

달아나는 그의 눈. 그의 눈은 뒤통수에 달려 있다. 그가 나를 반격할지도 모른다. 나는 그날의 그를 잊지 못한다. 겨울 방학의 귀성, 기쁜 마음으로 집을 꾸리던 나를 불러낸 그, 아무렇지도 않은 표정으로 명함을 내놓고 나를 불들어가서는 현병 군조에게 넘겨준 그, 그가 그런 짓을 한 그날의 그 흐린 12월의 도쿄의 하늘과 요코하마의 하늘을 나는 잊지 못한다. 나쁜 놈!

- 김춘수, 『꽃과 여우』, 189면

같은 동족에게 체포되어 현병대에 넘겨졌다는 충격은 그의 수필과 소설, 시에서 모두 동일하게 나타난다. D의 밑줄 친 부분은 수필에 원래 있었던 내용으로서 E의 소설로 변화하면서 삭제된 부분을 표시한 것이다. 삭제된 밑줄 부분에 주목해서 두 개의 글을 비교해보면, D는 자신을 일본 현병에 넘긴 야스다를 쫓아가 불들고 용서를 받아야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표명하고 있는 데 비해, E에서는 이러한 내용이 삭제되고 당시 사건에 대한 심경을 말하는 것에 주목하고 있다. 이것은 2장에서 설명한 다른 유년의 사건들이 당시 상황을 정서적으로 분석하여 심리적인 충격을 완화하는 과정을 거치는 것과는 정반대이다. 소설에서는 '나'의 생각 부분을 삭제함으로써 오히려 당시 사건의 충격과 공포를 더 생생하게 재현하고 있다. 동일한 내용은 시에서 다음과 같이 형상화된다.

ヨハマ현병대 가지빛검붉은벽돌담을끼고달아나던 ヨハマ현병대현병軍曹某에게 나를넘겨주고달아나던박승줄로박살내게하고木刀로박살내게하고浴槽에서氣를絕하게하고달아나던 創氏한일본姓을등에짊어지고숨이차서쉼표도못찍고띄어쓰기도까먹고 달아나던식민지반도출신고학생현병補야스다某의뒤통수에박힌 눈 개라고 부르는인간의두개의 눈 가엾어라어느쪽도동공이없는

- 김춘수, 「처용단장」 제3부 5 전문

인용된 시는 의도적으로 띄어쓰기를 하지 않음으로써 급박한 호흡과 심리적인 압박감을 표현하고 있다. 앞뒤 구절로 보면 “숨이차서쉼표도못찍고띄어쓰기도까

먹고” 달아나는 것은 “식민지반도출신고학생현병補야스다某”이지만, 이는 동시에 결박당한 채 매를 맞고 육조 고문을 당하던 ‘나’의 숨이 막힐 만큼 공포스러웠던 심경을 표현하는 것이다. 이것 역시 당시 ‘나’의 심리적 충격을 완화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극대화하고 있다.

그러나 이 시가 단순히 자신의 감정을 토로하는 것에 그치지 않는 이유는, 당시의 공포와 충격을 ‘야스다’에 전이시켜 놓고 있기 때문이다. 시에 드러나는 숨막히는 긴장감은 동앗줄과 목도와 육조 고문에 대한 ‘나’의 공포심을 표현하는 것이지만, 표면적으로 보면 이 시는 자신을 일본 현병대에게 넘기고 달아나던 야스다의 뒷모습을 소재로 하고 있다. 여기서 야스다는 ‘나’를 현병대에 넘겨주고 숨이 차도록 도망가는 비겁하고 초라한 ‘식민지 반도 출신 고학생’일 뿐이다. 그는 뒤큄지가 따가운 듯 뒤를 힐끔거리며 달아나고 있다. 그의 뒤통수에 달린 두 눈은 ‘나’를 감시하고 위협하는 눈이 아니라 죄책감과 두려움에 도망가는 ‘동공이 없는’ 눈이다.

이러한 설정은 실제 사건과는 정반대의 상황을 가정한 허구이다. 수필과 소설의 내용에 따르면, 실제로 ‘나’는 그 후 야스다가 무엇을 하고 어디에 있는지 알지 못하고, 야스다는 자신을 비난하고 원망하던 눈초리조차도 기억하지 못하고 있을 가능성이 더 크다. ‘나’에게 씻지 못할 트라우마로 남아있는 사건을 가해자인 상대방은 기억조차 하지 못한다는 사실은 ‘비극’일 수밖에 없다. 이 시는 ‘나’와 ‘야스다’의 상황을 역전시켜 야스다가 죄책감과 두려움에 사로잡혀 달아나고 있다고 표현함으로써 실제로는 해결될 수 없는 트라우마를 극복하려는 시도인 것이다.

2) 역사성의 삭제를 통한 억압의 해소²⁵⁾

김춘수는 이처럼 수감과 관련된 기억들에 창조적 상상력을 개입시켜 사건의

25) 역사에서 역사성을 제거하는 가장 기본적인 방식은 시간성을 삭제하는 것이다. 역사는 본래 시간적인 속성을 가지고 있는 것인데 그것을 무시간성의 소재로 만듦으로써 역사의 기본적인 속성을 삭제하는 것이다. 「처용단장」에 나타나는 무시간성은 역사성을 제거한 대표적인 예이다. 이에 대해서는 졸고, 2015 「김춘수의 「처용단장」에 나타나는 시간의식에 대한 연구」『Comparative Korean Studies』23-1에 밝혀져 있다. 이성희 역시 김춘수가 역사주의에 저항하기 위해 시간성을 전복시키고 있다고 보고, 그 방법으로서 신성한 순간의 현현과 몽타주 수법, 전도된 상상력 등을 들고 있다(이성희, 2011『김춘수 시의 멜랑콜리와 탈역사성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실제성을 지우거나 변화시킴으로써 트라우마 치유를 시도하고 있다. 이러한 방식은 자신의 수감 생활을 역사라는 보다 큰 맥락으로 연결하고 이해할 때도 마찬가지다. 그는 수감 경험을 자신의 의지와 무관하게 삶에 끼어들어온 역사의 폭력으로 인식한다. 수감 상황이 개인의 일이면서 동시에 식민과 괴식민, 이데올로기 등 역사적 상황과 무관하지 않다고 할 때, 트라우마를 치유하는 근본적인 해결책은 역사의 폭력성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의 문제가 될 것이다.

그는 역사적 소재에서 역사성을 삭제하고 그것을 가치중립적인 것으로 치환시킴으로써 역사의 억압에서 벗어나고자 한다. 『꽃과 여우』에는 대학 2학년 때 아나키즘에 흥미를 가지게 되어 크로포트킨과 바쿠닌, 브르통, 베라 피그넬 등에 관한 책을 읽었다고 되어 있다. 이러한 경험은 「처용단장」 제3부 23, 29~31에 반영되어 나타난다.

그러나 이 시들에서 바쿠닌이나 크로포트킨 등 무정부주의자들은 그들의 신념이나 사상과는 상관없는 단순한 기호로만 사용되고 있을 뿐이다.²⁶⁾ 설령 신채호나 베라 피그넬처럼 의미가 부여된 소재들인 경우에도, 김춘수가 관심을 가졌던 것은 그들의 사상과 이념이 아니라 수감되었다는 상황 자체이다.

꿈이던가,/ 旅順감옥에서/ 丹齋선생을 뵈었다.

땅 밑인데도/ 들창 곁에 벚나무가 한 그루/ 서 있었다.

벚나무는 가을이라 잎이 지고 있었다.

조선사람은 무정부주의자가 되어야 하네/ 되어야 하네 하시며/ 울고 계셨다.

단재선생의 눈물은/ 발을 따뜻하게 해주고 발을/ 시리게도 했다.

仁旺山이 보이고/ 하늘이 등꽃빛이라고도 하셨다.

나는 그 때 세다가와서/ 감방에 있었다.

땅 밑인데도/ 들창 곁에 벚나무가 한 그루/ 서 있었다.

벚나무는 가을이라 잎이 지고 있었다.

나도 단재선생처럼 한 번/ 울어보고 싶었지만, 내 눈에는 아직

인왕산도 등꽃빛 하늘도/ 보이지가 않았다.

- 김춘수, 「처용단장」 제3부 3 전문

26) 그 예로서 “太初에/ 무정부주의가 있었다. 무정부주의는/ 밭이 없다./ 보이지 않을 때가 있다./ 바쿠닌은 입이 크고/ 크로포트킨은 수염이 아름답다. 가을에는/ 모과빛이 난다. (후략)”(「처용단장」 3부 31)와 같은 시를 들 수 있다.

위의 시는 단재 신채호를 만난 꿈을 소재로 하고 있다. 시에 등장하는 감방은 김춘수가 실제로 수감되었던 감방을 모델로 한 것이고, 거기에 신채호가 수감되었던 여순감옥의 이미지를 겹쳐놓고 있다.²⁷⁾ 꿈에서 단재는 무정부주의자가 되어야 한다고 말한다. 감옥에 갇힌 단재는 ‘인왕산’과 ‘등꽃빛 하늘’로 상징되는 조국을 그리워하며 조국 독립을 위한 신념을 버리지 않고 있다. 이에 비해, ‘나’는 아직 인왕산과 등꽃빛 하늘이 보이지 않는다고 말함으로써 단재와 자신의 입장이 동일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재를 시적인 소재로 사용하고 있는 것은 단재의 신념 때문이 아니라 ‘수감’되었다는 상황 때문이다. ‘나’에게 단재는 무정부주의자이며 독립운동가인 민족의 위인이 아니라 ‘나’와 동일한 경험을 가진 인물로서 의미가 있을 뿐이다.

무엇이 그렇게도 미안한지
 21년 하고도 일곱 달
 별이 드는 쪽으로는 한 발짝도
 발을 뗄지 않는다.
 그네
 베라 피그넬의 뒷덜미에
 오늘은
 진한 은회색의
 진눈깨비가 내린다. 배 고픈 듯
 한 번 더 미안한 듯,

- 김춘수, 「처용단장」 제3부 23 전문

위 시의 소재인 베라 피그넬 또한 여의사이자 무정부주의자로서 활동했던 역사적 인물이다. 시는 마치 베라 피그넬을 눈앞에서 보고 있는 것처럼 묘사하고 있지만, 그녀와 관련된 객관적 사실은 21년 7개월 동안 수감생활을 했다는 것뿐이다. 별이 드는 쪽으로 한 발짝도 옮기지 않았다는 것은 그 이야기를 듣고 상상한 허구이다. ‘미안한 듯’이라는 표현도 부유한 귀족이었던 베라가 아나키스트

27) 김춘수가 실제로 수감되었던 감방은 다음과 같이 묘사되어 있다. “지하 감방의 하나뿐인 사방 20센티미터 정도의 창문으로 내다보는 언덕빼기에 어린 벚나무가 한 그루 서 있었다. 그것이 열어 있다가 꽃을 피우고 꽃을 떨어뜨리고 녹음이 짙어가는 것을 바라보게 될 때 풀려났다.”(『꽃과 여우』, 188면)

가 되고 수감생활을 벼틴 것이 아마도 속죄의식 때문이었을 것이라는 추정에서 나온 말이다.²⁸⁾ 이처럼 베라 피그넬 역시 아나키스트로서의 활동이 부각되는 것 이 아니라 수감된 모습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이외에도 박열과 이희영, 금자문자 또한 ‘역사’라는 부분이 삭제되고 수감된 상태의 ‘수인’이라는 점만 부각되어 있다.²⁹⁾ 이는 수필이나 소설에서 육체적 폭력에 굴복하지 않고 신념을 지켰던 이들의 행위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 것과는 대조적이다. 역사적 인물에서 역사와 관련된 신념과 행위를 삭제하고 수감되었 다는 공통점만을 강조함으로써 육체적 폭력에 굴복했던 나약한 자신에 대한³⁰⁾ 부정적인 기억을 지우고 심리적 억압을 해소하는 것이다.

이 경우 시 창작은 정서적 전환을 통해 부정적인 기억을 새로운 맥락에 위치 시키는 것보다 더 적극적인 치유 방법이라고 볼 수 있다. 실제 사건을 인정하고 재구성하는 것이 아니라 사건 자체를 아예 허구로 바꾸어버리거나 가감함으로 써, 그것에서 기인한 트라우마를 치유하는 것이다. 이 때 창작 행위는 개인의 트 라우마를 치유하는 창조적이고 발전적인 치유 방법으로 기능한다.

4. 나가는 말

본고는 폭력의 체험이 김춘수의 트라우마로 남아있음을 밝히고 그것이 창작

28) 『꽃과 여우』, 122면. “베라 피그넬에 대한 내 관심은 그녀가 신봉한 이념 때문이 아니다. 아나키스트로서의 그녀에게 내 관심이 쏠린 것이 아니다. 그러나 이념 때문에 목숨을 바 치고도 끄떡하지 않는 사람은 얼마나 될까? 이 세상에 귀중하지 않은 목숨이 어디 있을까? 그녀는 생애에 몇 번쯤 혼들렸을까? 그럴 때마다 어떻게 감당해냈을까? 그 과정과 과정이 끝난 뒤의 그녀의 표정은 어떠했을까?” 여기서 김춘수는 베라 피그넬의 저항이 속죄의식에서 온 것이라고 분석하면서도, 그러한 행위가 어떻게 가능한지 이해하지는 못 하고 있다.

29) 이들을 소재로 한 시는 「처용단장」 3부 23[박열, 금자문자(金子文子)], 29(이희영), 31 (박열)이다.

30) 『꽃과 여우』, 189-190면. “나는 아주 초보의 고문에도 견뎌내지 못했다. 아픔이란 것은 우선은 육체적인 것이지만 어떤 심리 상태가 부채질을 한다. 그렇게 되면 사람의 육체적 조건은 한계를 드러낸다. 손을 번쩍 들고 만다. (중략) 감방이란 희한한 곳이다. 사람을 비참하게 만들고 자신감을 죽이는 이상으로 재기 불능의 상처를 남긴다.”

행위를 통해 어떻게 치유되는가를 살펴보고자 한 것이다. 김춘수의 시에는 유년 시절의 인상이나 기억을 바탕으로 한 작품들이 많다. 특히 크고 작은 폭력과 연관된 기억들은 그의 시에 반복되어 나타나는 소재들로서 그 중에서도 수감 체험은 김춘수의 가장 큰 트라우마로 남아있는 것이다. 김춘수의 트라우마와 그것을 치유하는 과정은 소설『꽃과 여우』와 연작시 「처용단장」에 집약된다.

과거 경험을 글의 소재로 선택하는 것은 트라우마의 원인이 되는 기억에 직면함으로써 문제를 인식하는 것으로서 치유의 첫 단계에 해당한다. 어린 시절 또래들로부터 따돌림을 당하거나 맞았던 일들, 반대로 자신이 상대에게 폭력을 가했던 일, 일본에서 겪은 수감 체험 등이 그 예이다.

과거 기억에 직면한 후 그것을 치유하기 위해서는 억압된 감정들을 방출하고 사건에 대해 정서적인 전환을 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소설에서 ‘나’가 가해자로서 식모아이를 때리거나 개의 다리를 뽑은 일이 실제 사건에 해당한다면, 식모아이에 대한 미안함, 다리를 뽑힌 개에 대한 죄책감 같은 감정들은 사건이 있은 후에 추가된 해석일 가능성이 높다. 이것은 부정적인 기억에 정서적인 분석을 가하여 당시 사건을 새로운 맥락에 위치시킴으로써 심리적 평정 상태를 회복하고 트라우마를 극복하고자 하는 것이다.

반면 ‘나’가 피해자였던 기억은 교통사고와 같은 외부 작용에 의해 간접적으로 해결된다. 그 중에서도 수감 체험은 충격과 공포의 경험으로서 정서적 분석이 불가능한 트라우마로 남아있다. 이러한 트라우마를 극복하기 위한 방법은 두 가지이다. 첫째, 허구적 상상력을 개입시켜서 트라우마의 원인이 되는 사건 자체를 변화시키는 것이다. 시에서 자신을 일본 현병대에 넘긴 ‘야스다’가 죄책감과 두려움에 도망쳐가는 것으로 표현함으로써 당시의 충격을 해소하려고 시도하는 경우가 그렇다. 둘째, 역사적인 소재에서 역사성을 삭제함으로써 그것의 억압에서 벗어나는 것이다. 시의 소재인 신체호, 베라 피그넬 등은 역사적인 인물이라는 점은 삭제되고 자신과 동일하게 감방에 갇힌 ‘수인’이라는 점만이 강조된다. 역사적 인물의 사상이나 신념 등을 삭제하고 수감되었다는 공통점만을 강조함으로써 역사의 억압을 해소하려는 것이다.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김춘수의 시 창작은 자신의 트라우마를 치유하는 방

식으로 선택된 것이기도 하다. 창작 행위는 상상력이 개입됨으로써 실제 자신과 거리감을 확보하고 사건을 객관화시키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김춘수의 시는 「처용단장」을 분수령으로 해서 무의미시에서 전형적인 서정시로 변화하고, 시의 소재 역시 과거 기억이나 경험이 아닌 현재의 일상생활로 변화된다. 이는 「처용단장」이 김춘수의 트라우마를 치유하는 기능을 하고 있음을 증명한다.

이상의 연구는 「처용단장」이 김춘수 개인의 트라우마의 표현임을 밝힌 기준 연구와 입장을 같이 한다. 그러나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 소설과 시의 비교 분석을 통해 트라우마를 치유하는 과정을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그것을 창작 행위가 가지는 치유의 기능과 연결시키고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주제어 : 폭력, 트라우마, 치유 과정, 『꽃과 여우』, 「처용단장」, 상상력

투고일(2016. 7. 27), 심사시작일(2016. 8. 12), 심사완료일(2016. 8. 18)

〈Abstract〉

A Study on trauma and self-healing process of
Kim, Choon-soo's poems

Mun, Hye-won *

This study is to show that experience of violence is left as trauma to Kim, Choon-soo, and how it is cured by writing. His trauma and healing process are appeared in his novel, "Flower and Fox" and serial poetry "Cheoyongdanjang".

Choosing the memory as the subject of the writing is the first step of healing process, which is to face the traumatic memory. The next step of the healing process is releasing the emotions and changing the feeling. This is to analyze the negative memory, to re-position the events, and to overcome the trauma.

However, the memory of being a victim is solved indirectly by external actions. Being shocked and feared, his life in prison is left as an un-analyzable memory. There are two ways of overcoming the trauma. First, victim may change the original event in one's imagination. Otherwise, one may escape from the suppression by removing the historicity from historical subject.

The study clarifies that "Cheoyongdanjang" is the expression of Kim, Choon-soo's trauma and explains the result by the healing process by comparison analysis of novel and poems.

Key Words : violence, trauma, healing process, "Flower and Fox", "Cheoyongdanjang", imagination

* Associate professor, Department of Korean Language and Literature, Ajou University.